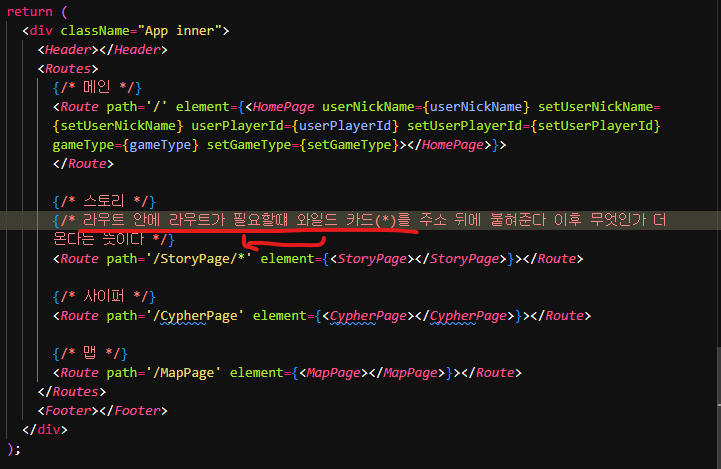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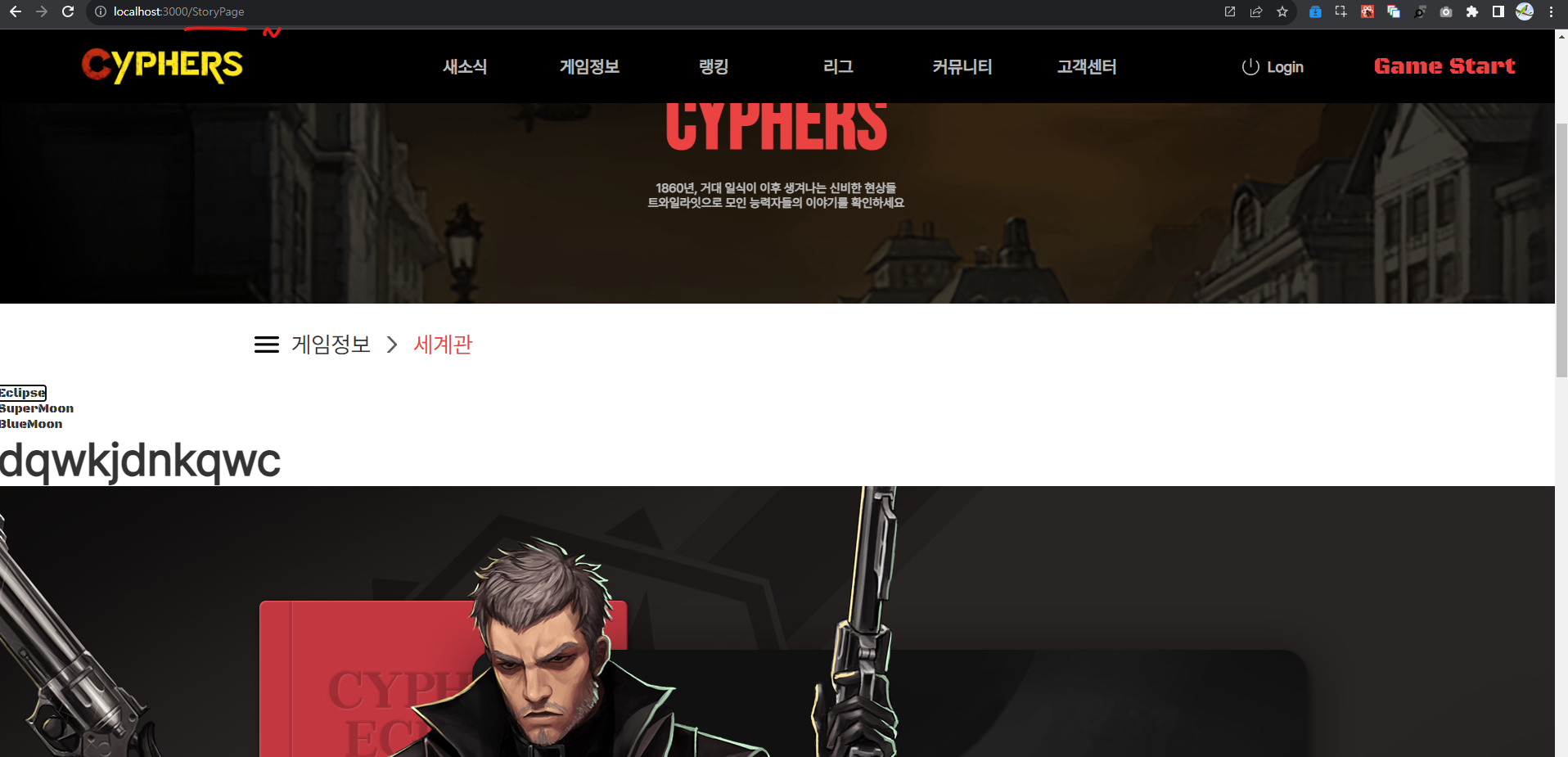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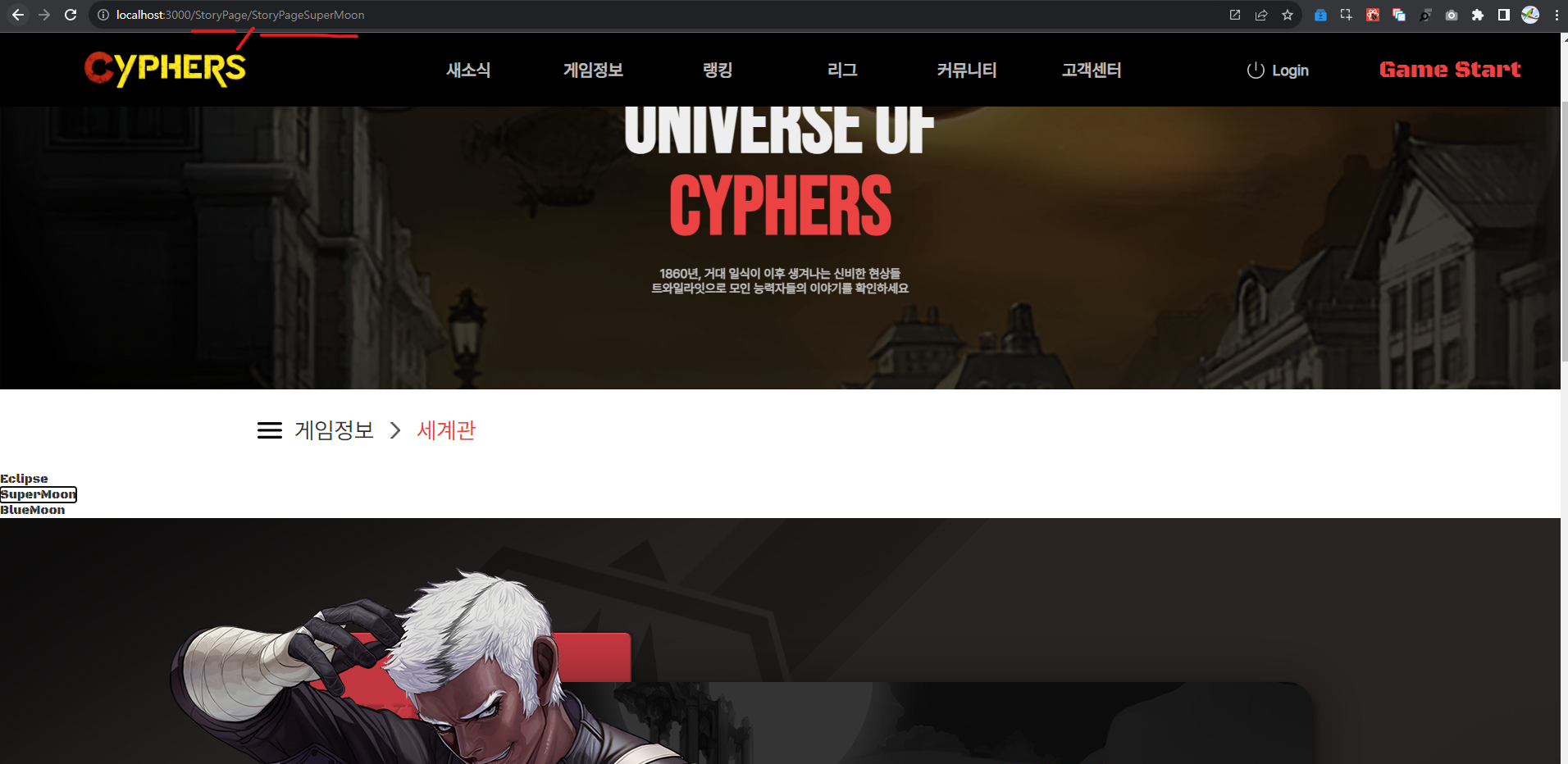
Main -> <Route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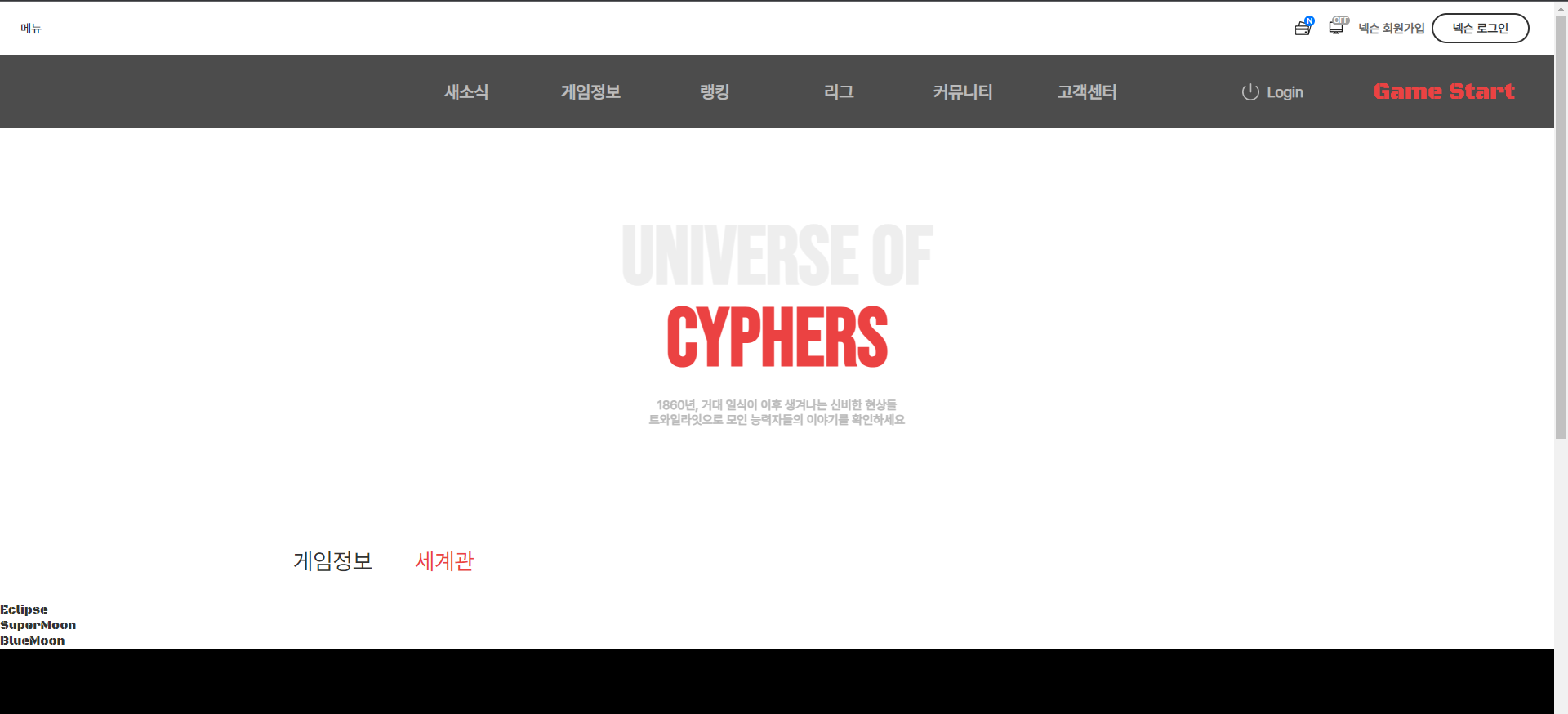
-> <Route>  
이처럼 라우트 안에 라우트를 사용하며 다중 라우트를 사용하려고 한다.  
  
나의경우 App.js에서 Route로 HomePage를 구현, Homepage에서 Story 섹션으로 이동했을 때   
Story 섹션 안에서 또 Route로 3가지의 페이지를 구현하려하는데  
경로의 문제인지 제대로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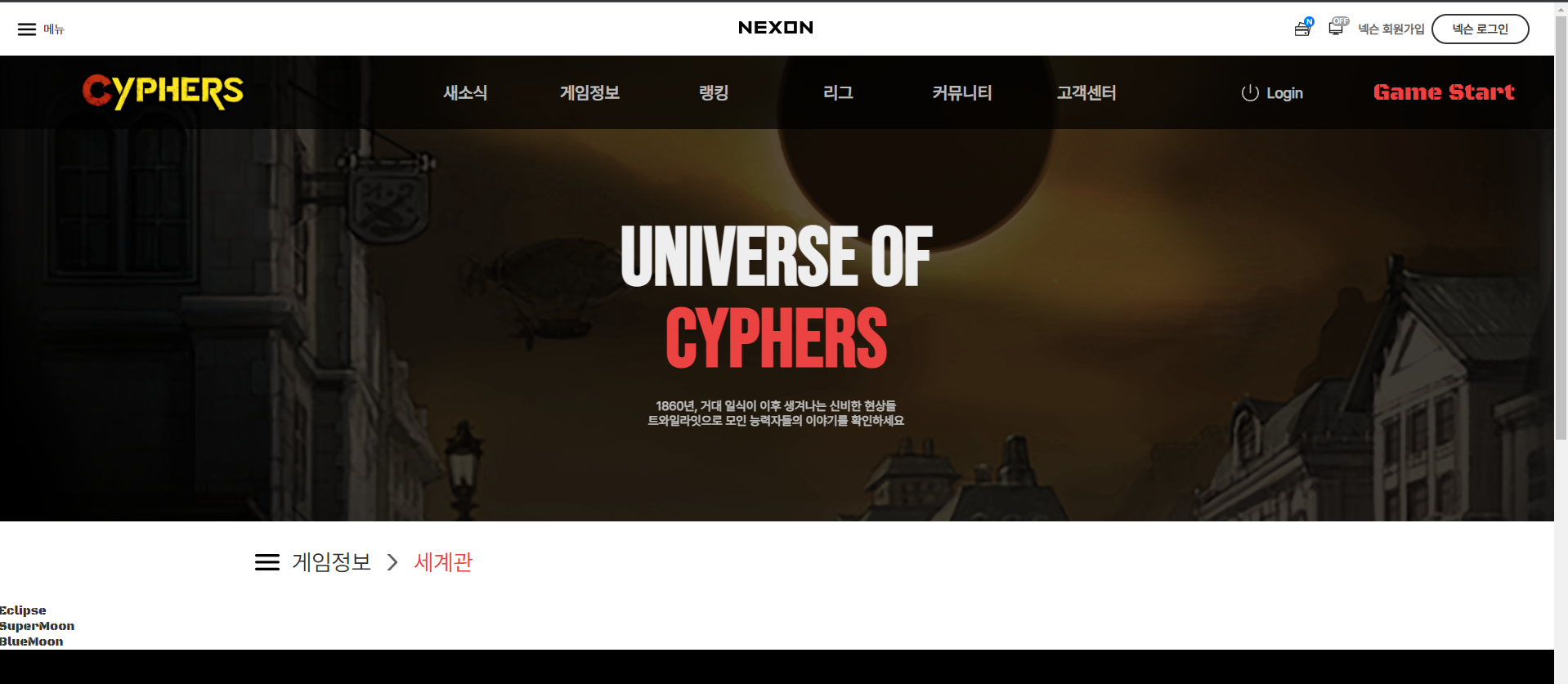
이렇게 다중 라우트를 구현하려면 2가지의 코드작업이 필요하다

1.  
  
  
라우트가 본인도 라우트를 가진다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기 위해 위와같이 pat의 뒤에 와일드 카드” /\* “ 를 붙여줘야 브라우저가 알 수 있다.  
2. 다중 라우트가 되는 라우트의 path 앞에는 “ / “ 을 붙히지 않고!! path를 만들어준다!!  
  
  
이 Route를 연결해주는 것은 버튼클릭에 따른 useNavigate를 이용했는데 path에서 지정한 대로 / 를 뺀 주소를 사용해준다.  


이렇게 해주면 브라우저가 다중 라우트 확인하고 구현할 수 있게된다.  
  
path를 “” 로 지정해준 라우트 는 / 가 붙지 않고 라우트를 선언한 부모 라우트 주소에서 바로 나온다.  
  
  


path를 “PageSuperMoon”로 지정해준 라우트 는 본인의 주소를 부모 라우트 주소에 / 를 붙힌채로 나오게된다.  
  
이처럼 이중라우트를 구현할때는 위와같은 설정이 필요하다.

또한가지 문제가 생겼다.  
다중 라우트 안에서 이미지가 가져와지지 않았다.  
  
  
이는 다중 라우트를 사용할때 다중 라우트가 되는 주소에서는 이미지의 경로를 읽을 때

src = “img/~ “ 로 읽을 수 없기 떄문이다.  
  
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론 정말 간단한데 img 경로앞에 / 슬래시 하나만 붙여주면된다.  
  
이런식으로 / 만 붙혀주면되는데  
  
이는 라우트가 아닌곳에서도 똑같이 보이니 이중 라우트를 작업한다면 img경로를 위와같이 해주는게 좋겠다.  


그런데 이렇게 이중라우트로 구현하고나니까 그냥 탭메뉴 처럼 만드는게 좋다고생각된다.  
라우트는 결국 재 렌더링 할때 이미지를 다시 깔아주기때문에 깜빡 깜빡하는게 있는데  
이게 굉장히 거슬린다.